

제429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8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의 2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및 방위비분담금 관련 보고자료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8월 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근 매우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기준 지난 9월 4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이민 당국 측의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300여 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긴급하게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9월 2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최혁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이 각각 보임하셨습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나 상황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 갈등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잘 풀어내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자 또한 우리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국민들께서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자랑스

롭게 여기실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께서도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각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미 조지아주 현장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등을 이유로 16시 15분에 이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의

(14시07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외교부장관께 자료 요구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8일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민자 단속정책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현황 관련한 영사조력 법률서비스 신청 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안전국의 답변이 아주 이상합니다. 언론에 나온 사례나 ICE 연례 보고서에 공식 발표된 수치,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자료들만 제출했고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분야별 현황 체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최소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개인 이름을 제출하라고 한 바도 없고 재외공관별 신청 수치,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국회와 정부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장관님께 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미 당국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앞으로 과연 미국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와 또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국회에서도 유감 표명을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하였으며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저희들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국회가 열렸습니다만 지금 또 제가 일각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마치 이번 사태에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그런 정략적 주장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처음 듣는 말씀이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저는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미국에 투자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이 달려 있는 문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미국 측과 협의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측과 앞으로 이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이런 불이익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식 위원 조현 장관님, 오늘 오후에 미국 출국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도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을 잘해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사흘 만에 마무리하고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날 돌아오신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테크니컬한 것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오늘 출국하시면 미국 내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곧바로 협의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향후에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 간에 이것을 면밀하게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미 그렇게 교섭을 해 왔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겼는가에 대해서 사실 따져 봐야 되는데 다행히 어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기업의 인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입국하도록 검토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결국은 비자 문제, 우리 국민들, 특히 대미 투자한 우리 기업들, 첨단 산업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미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전문인력들에 대한 비자 체계를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문직 취업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조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직 취업비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미 투자기업이, 동맹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는 강력하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그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자료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지난 2023년 6월에 미국 USTR에 이 문제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미대사관에게도 꾸준히 애로사항을 제기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2023년부터 우리 외교부와 대사관에서 이런 전문인력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와 어떤 논의를 했거나 또는 요청한 게 있는지 그와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저도 조현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 또 대통령실 관계 당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그나마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또 외교부의 영사조력 상황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잡히신, 단속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보면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 등의 2·3차 협력업체들로 보여지고요. 상용 비자 그러니까 B-1 비자나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겠지만 B-1 비자나 ESTA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참여 목적의 임시 체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단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당국이 본 저것은 아마 그냥 임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기 체류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바가 있고요.

이 사안은 지난 2020년에도 이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온, 당시 SK이노이베이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인도나 중국, 필리핀, 총 승인 건수로 보면 우리가 아주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규모에 비해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은 굉장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ESTA를 관행적으로 조금 이용하면서, 해당 업체에서는 저게 전문직 비자 발급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해 왔던 것이 있고 사실 양국 간에 일정 부분 저것을 묵인해 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한국 기업 종사자들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ESTA 발급 후에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취합한 것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외교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ESTA 발급 후에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보면 106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24년 대비해서 매년 증가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나가야 되는 사람도 늘어났겠지만 거부 수치도 적지 않다. 이것은 주미 공관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거부된 사례는 기업별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외교부 안에 별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안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경제안보센터는, 우리가 대미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동안 뭘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조치 문건을 보면, 똑같이 외교부 대응 조치로 9월 7일 자에 낸 것 보면 미 의회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별도의 E-4, 그러니까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아웃리치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7개 주 14개 공장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76조 6000억 원이고요.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한화로 약 28조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SK그룹은 약 13조를 투자했구요. 더욱이 현대자동차그룹은 트럼프 2기 동안에 총 별도의 28조, 약 29조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이 될 것 같으면 설비를 안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파견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보다 대미 투자나 인구가 적은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E-4 쿼터를 통해서 각각 1만 개 또 5000개의 전용 비자를 자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캐나다 무제한이고요, 멕시코 무제한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호주나 싱가포르나 칠레나 여기에 주어진 전용 비자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취업 전용 비자 발급을 각국에 내준 것 중에 그것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에 이 총량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서, 우리는 대미 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협상권을 얻어서 급하게는 그것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 번도 정상 간의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부속으로 해서 논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 발급이 최소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미 투자에도 문제가 생기고 현지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상 간 회담의 의제로 반드시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장관께서 어쨌든 미국을 방문하시니까 방문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APEC 회의 때 조금 더 좋은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꼭 성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당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2023년 5월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해서 75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은 것

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땅 내에서 조립한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제조도 일정 정도 미국 땅 안에서 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합작을 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운 거지요. 잘 아시지요?

무려 75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설비를 짓는 초반에는 우리 기술력들이 들어가지만 공장이 완공되고 본격 생산이 시작되면 조지아 현지 주민을 8500명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현지 공장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장관님, 앞으로 미국과의 투자가 더 활발해지면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무역 생산 파트너로 아예 이런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LG엔솔 측과 협의를 했는데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들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사전에 잘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일명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해서 E-4라는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호주 몫으로 1년에 1만 500개의 비자를 따로 배정받았는데 그게 E-3입니다. 이외에 싱가포르나 캐나다, 칠레도 각자 다양한 형태로 미국 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E-4 비자를 만들어서 일정 정도 쿼터를 배정받으려고 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안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미 측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하지 않아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E-4가 신설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이른 내에 어렵다면 다른 우회하는 방안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2 비자가 투자자 비자인데 이게 한미 합작 사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에게 해당될 근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술인력 주재원 비자가 L-1인데 이걸 적용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2나 L-1에 대한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 이외에 미국 내에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ESTA 단속을 제외시키도록 미국 당국과 협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다만 이게 미국 국내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과연 해낼 수 있을는지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적극 교섭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지위 확보도 필요하겠습니다. 당면해서는 단기적으로 우회적으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각도

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국하시면 국무부장관을 만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금 추방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추방되면 5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좀 협상을 잘해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조지아에 공장의 건설이 다 됐고 배선만 남아 있다고 하던데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미국으로서나 우리로서?

○외교부장관 조현 현지에서 지금 우리 기업과 또 지방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연방정부와 가서 협상을 해서 그런 단기적인 문제도 물론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예, 잘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한편으로는 묵은 문제다, 터질 게 터졌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정부 측의 노력 부족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국회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넘지 못한 벽이 있었다면 특단의 조치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터리 공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을 극우정치인이 신고해서 빚어진 것이 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현지 여론들, 온라인 반응들을 보면 사실 냉정하고 이성적이긴 해요. 결국은 해당 신고가 부적절해서 자국 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향후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 점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물어보시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그러니까 협상이 어느 정도는 여지를 두고 저희 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적의 조치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석해서 현장에 방문해서도 그런 내용들 관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유비라든지 미쓰비시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전기차 공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자 쿼터를 받지 못한 건 동일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내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왕에 한일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타고 한일 간 여러 가지의 협력 방안이 있다면 이 점에 있어서 긴하게 협력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일단 정보 공유 같은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윤석열 정부 당시에 공급망과 관련해서 조기경보시스템—굉장히 말은 거창하긴 한데—꾸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함께요. 저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비자 장벽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기경보시스템 유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상해 봄 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현지에서는 물론 ESTA 비자로 실제 건설업이라든지 명백하게 비자의 범위 밖에 있는 노동에 종사했다면 그것은 또 다루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의 범위 안에 있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현장의 필요성 장관님께서 역설을 해 주셔야 되고 완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재정 위원 지금 불법체류 단속과 관련된 이야기로 현안질의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쭙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을 준비는 하고 계셨던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 위원 그 과정에 혹시 합의문 내용 안에 또는 향후에 실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합의문 내용 안에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어떤 거요?

○이재정 위원 대만 문제, 양안 문제.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없습니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언급하기는 했지만 신중하고 균형 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언급이 굉장히 정례화되고 다자화 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 그것도 정말 굉장히 강한 어조의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문구는 유지하지만 직접 개입을 피하려는 실용적인 외교로써 그나마 중국 측의 이해 그리고 또 미국 측으로부터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과 인접국의 입장들을 이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기조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대만 전략적 유연성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기의 평화와 안정,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것 그런 것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재정 위원 평화와 안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어쨌든 거기에 우리의 개입을 최소

화한다는 취지의, 의지의 문구도 대통령실 발로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중국의 한 균형 점에서 위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발언들에 그간의 중국의 반응, 중국을 의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내에서의 우려들을 고려할 필요 있다는 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체류자에 대한 집단체포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나마 조기에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 이것은 국가적인 불명예일뿐더러 그냥 한번 넘어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처음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봐서 별로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면 30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돼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 자리를 걸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9월 4일 날 22시 30분, 밤 10시 반에 체포한다고 들어갔는데요. 장관께서는 언제 이 사태를 아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한국 시간 밤늦게 알았습니다.

○김기현 위원 몇 시쯤 아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때 그러면 장관께서 아시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현 위원 대통령께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걸 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안보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안보실에는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요?

그게 목요일 밤이 맞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현 위원 밤에 보고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미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현 위원 저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주무시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긴급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잡혀 갔는데 그냥 편하게 주무신다고요? 아니,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직책에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시면, 그 사태가 나고 난 다음날 우리 정부 관계차관을 통해 가지고 미국 대사대리에게 유감을 전달했다. 그런 다음에 그날, 아직 사태가 해결이 안 된 날 오후에 대통령이 인천 용현동 전통시장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영화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사, 총영사관에게 하라고…… 대사관, 대사도 없지요, 총영사도 없지요. 그 상태로 지시했다. 그것도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한 겁니다.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일요일 아침에는 영화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진 보시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웃어야 될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300명이 붙잡혀서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 혼한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 하나 없다.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조차 안 해 준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삼백몇십 명이 붙잡혀 가 있는데 왜 이 브리핑 안 합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 외교부에서 필요한 브리핑을 신속하게 그리고 계속해 왔음을……

○김기현 위원 이 사태는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지켜 달라고 하고. 아니, 700조를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것이 대통령이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300명이 넘는데 대통령이 잠을 주무시고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장관께서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사태가. 대통령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는 사건 직후부터 현장에서 또 워싱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하고 즉각적으로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요한 위원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7대 강국인데 먼저 매우 적절치 않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문 정권 때 우리가 400조 빚을 졌어요. 또 최근에 와서 돈을 나눠 주고 여러 가지 추경 때문에 100조 정도 또 추가되고.

전체 투자 액수가 요구하는 게 장관님, 전체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금 미국에서?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인요한 위원 700조입니다. 그러면 700조를 나누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1209만원이 됩니다. 일본이 600만 원입니다, 요구사항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단순 계산은 그렇습니다마는 첫 번째,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중의 상당한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조선과 같이 한미 공동합작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인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에 너무 큰 액수라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국과 끈기 있게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의 빚이 GDP의 50%가 최근에 넘었고 또 이 사건을 보면 ICE(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등등 그런데 왜 마약단속국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또 이민법을 고의로 어긴 건 아닌지.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대사, 총영사 이런 분들이 다 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비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사실 H·E·L 노동 비자가 있는데 장관님, 뭐가 지금 시급하냐 하면 단기로 미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6개월 노동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몇 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H·E·L 이런 비자를 신청하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비자 인터뷰를 잡으려면 너무 길어져서 ESTA로…… 국민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관광 비자로 왜 이렇게 많이 갔는지. 사실 다 이해할 만합니다. LG고 현대고 계열사들이 다 그걸 이용해서 가는 건 지당한 일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마약단속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이민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요한 위원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총비서께서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전승절에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봐서 상당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부강하지 못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의 정상하고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코멘트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력에 비하면 북한의 외교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상징적 이미지긴 합니다만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지도자의 모습이 세계로 전승돼서 상징적 측면에서 북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또 여기에 거침없이 참석하게 된 것은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보여줍니다.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 하는, 핵보유국가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인요한 위원 외교부장관님,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것의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답변을 그에 대해서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전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미국 당국에서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 드러났고 또 오산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해하겠다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는 변화가예요? 우리로 치면 분당이나 용인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게 참 힘든 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다고 그러합니다.

○윤후덕 위원 백인 근로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급히 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 있는 지역이 진짜 시골 중의 시골이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인력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률이 무려 97%의 공정률이에요. 10월 말 정도에는, 한 달 후에는 다 완공이 되는 그런 공정의 공장이었어요. 거기를 몇 달씩이나 준비를 해 가지고 대규모로 검거하고 단속을 한 거예요, 미국이.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로서는. 투자는 하라고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부 간에 급히 교섭을 한 것 아니예요? 교섭을 하면서 한 300여 명 사람들을 다 자진 출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자진 출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법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되돌아오려고 그러는 것,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불법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투어 봐야 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300여 명 중에서는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ESTA로 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불법인 사람도 있겠지요. 이것을 다 자진 출국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 한 3% 정도 공정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자나 임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한국 왔다가 바로 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10조 원짜리 투자인데. 이게 미국으로부터 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지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오늘 이렇게 가면 상대방의 장관하고 협의할 때 실제 불이익이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래요. 미국에 자주 가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자진 출국을 해서 전용기를 타 가지고 그 이후로는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 버리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에요? 그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협상하면서 제대로 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

○윤후덕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개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오늘 미국으로 가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의, 전용기에서 무사히 오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가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비자 문제를 긍정적으로, 앞으로 하는 일들의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현대자동차에서 나한테 이렇게 보고를 긴급히 해 준 것,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 공장 설립 시, 그러니까 ‘미국에 현지 공장 설립 시 1. 기술 지원을 위해 일시 체류하는 출장하는 사람, 출장자에 대해 특별 체류 비자 발급’, 이게 E-4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상용 비자 발급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미국 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해 주네요. 이것 꼭 좀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서 바로 이것 타결할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최대한 신속히 타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번에 이것 타결하지 않으면 참 문제가 커요. 투자 자체가 다 안 되지요.

이게 그러면 장관 간에 협의한 것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의 이를테면 행

정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 있지요, 그게 무슨 법이더라, 한국 동반자법 이것을 제정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빠르고 또 미국 측에서 이행하는 데 손쉬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꼭 성과를 내고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지역 홍기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단속하고 구금한 것 관련해서 특검이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또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인데, 사실 이 특검이 갔던 그 부대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은 그 부대 안에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거기서 운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목적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항적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러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당연히 미군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특검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 다수를 구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유언비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동의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헛된 말을 퍼뜨려 가지고 한미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거나 한미관계를 안 좋게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이번에 단속과 관련해서 미국의 뉴스를 보면 단순히 사실 현장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특정 사업장을 단속해서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 실적을 낸 곳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이곳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유치해서 우리 기업이 거기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자랑한 곳이거든요. 또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공장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그렇게, 법과 현실의 그런 괴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런 곳을 단속하고 그것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서 홍보까지 하는 이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예의나 배려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차관님이 미국 국무부차관한테 유감을 표시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장관님이 미국 가시면 국무장관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또 강력하게 입장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동안 저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조속히 구출하는 것이 더 큰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미 측에 이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구금된 우리 한국인들을 국내로 모셔 오는 게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데, 그 부분이 완결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결국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2006년·2007년 한미 FTA 협상 때도 이 문제를 우리가 강하게 제기했지만 결국 미국이 받아 주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재계 측 얘기는 그 이후로도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주도록 끈질기게 요청을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단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이 의제로 안 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의제화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큰 불행한 일이 님쳤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서울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에 구금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고통이 아주 심하다, 그리고 교민 사회라든지 또 회사 측에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든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10일 귀국 절차도 잘 매듭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이렇게 없도록 하는 것은 기 합의된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대장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예, 잘 매듭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단속에 대한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윤 정부 특검과 관련되어서도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 현장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바이든 정부 때 치적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치적 지우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투자 협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위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중국의 전승절에 한국의 대표단 참여에 대한 반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말씀하셨던 특검의 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유를 공론화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도 낮출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특히 2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국과는 정말 좋은 관계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해외 기업들,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존중해 주기를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보면 정치적 목적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지아주 공장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 건설에는 대부분 전문 취업 비자보다는 여행 비자(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로 대부분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간에 전문 취업 비자 확보를 위해서 기업도 또 외교 당국도 꽤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ESTA라든지 B-1 비자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일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편법이지 사실은 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제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편법적 방식의 취업은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도, 우리 당국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E-4 비자, 소위 한국인 전용 전문 취업 비자라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E-4 비자는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해 왔습시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시다마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신뢰를 쌓았고 첫 정상회담 도 잘되었고 그런 결과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와 또는 쿼터 또는 2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E-4 비자는 기본적으로는 입법 절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어제 발언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 시그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국의 투자나 그런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것 없이는 현실적으로 공장 건설이 어렵고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똑같이 피해를 보는,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으로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도 외교 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수 위원 외교부장관께서 오늘 미국 가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목요일 저녁이라도 대통령께 공군 1호기라도 요청해서 빨리 가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 금·토·일 외교부장관님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중요한 일 정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더 빨리 가셨으면 지금 정말 악취와 곰팡이 나는 그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300명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한국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국가의 공복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안철수 위원 헌법 7조 제1항 보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는 또 아시는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안철수 위원 헌법 제66조제2항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

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외교부장관께서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게 이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지키라는 책무를 방기한 거지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7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비자라도 받아 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는 사건을 접한 즉시부터 대통령실에 보고해서 안보실과 외교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미국과 소통을 긴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고 또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워싱턴의 총영사가 즉시 가서 영사 접견을 이미 마쳤고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 그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됐고요.

사실 문제가 비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공장을 처음 세우거나 또는 유지·보수할 때 결국 ESTA나 B-1 비자로, 사실은 비자 목적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 장관께서 지금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공장 자체는 아니지만 소위 사업장이 2000개가 넘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위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합니다.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 비자 H-1B를 확보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 내는 그런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마침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이다 하는 것을 미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그러니까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저는 정부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좀 아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우리 정부만 때리고 ‘트럼프의 경고다’, ‘동맹 붕괴시켰다’, 이것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고함은 미국에 치시지요. 이게 트럼프의 경고라니요? 트럼프의 깡패 짓입니다. 뒤통수 맞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뒤통수 때린 것이 잘못된 겁니까? 똑바로 합시다.

제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들에게 과거를 말씀드릴게요.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바이든 정부 때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 아주 신이 나서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그리고 옆에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중범죄입니까? 저렇게 만든 게 뭐냐? 미국에 그렇게 투자하면서 단 하나 받아 내지 못하고 IRA법에서 7500달러씩 전기차에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못 받고 아메리칸 파이만 열창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정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낚새했다고 구금자들 인터뷰에서 얘기하잖아요, 낚새가 있었다.

2020년에 조지아에서 33명 한국인이 추방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110개 기업이 있었고 기업의 숙원이고 낚새까지 있었다는데……

그리고 장관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오래전에 기획했던 거라서 어쩔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오래전에 기획했다면 이번 관세협상에 가자마자 우리 요구로 들이밀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에 어떻게 막아 낼 것만 얘기하고 왜 우리 요구는 안 내는 겁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다가 조건부로 비자를 안 주면 투자 못 한다고 왜 얘기 못 합니까? 지금도 가셔서 협상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미국 국내법이라서 곤란하다’, ‘호응을 잘 안 한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셔서 협상에 이기시겠습니까?

제가요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안은, 지나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아주 안이함과 대미 굴종적 자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관세협상이 이미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실무협상에서 갈등 많으시지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카운터프러포절(counterproposal)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향후 투자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 같습니까? 저것 실태조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국이 긴장합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영어 가르치고 관광하고 가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교하지 못합니까? 외교부,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 관성이고 안일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돈과 투자 그것을 미국에다 해 주면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저는 당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관광비자 들고 와서, 지금 그냥 간이조사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여기에는 영어학원은 빠져 있을 겁니다. 조사라도 해 두십시오.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의 결기 있는 대처 방안을 저희가 잘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미국의 사실상 투자 요구에 따라 일하러 간 우리 국민들께서 쇠사슬로 묶이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솔직히 황당하고 답답하고 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또 김준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내 미국인의 불법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아울러 미리 알고 또 미리 챙기지 못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 올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 두 가지 접근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말씀 나누실 텐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또 한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호혜적 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이번 일이 이벤트성 접근 또는 선동적 접근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인 해결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되어야 되고 국민들께 실질적 보호와 또 실질적 편익이 도모되는 그런 해결, 상호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우회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6년 한미 FTA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잖아요. 못 넣었던 이유가 결국 미국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넘어가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이쪽에서 미국 일자리 피해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 도리어 요청하고 미국 경제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FTA 당시에 넣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지금은 바뀌었다는 생각이구요.

또한 호주는 1만 500명, 싱가포르도 5400명, 칠레도 1400명, H-1B 비자 쿼터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쿼터가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최소 호주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호주보다는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너무 안 챙기고 있지 않았나. 물론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장관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라도 우리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다루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었던 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챙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미국 가시면 미국 국무부장관 만나서 말씀 나눌 텐데 지금 한국 동반자법 기준에 세 번이나 다 법안 폐기됐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논의만 되면 이번에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논의 준비하고 가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우리 외교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상대국의 법령 중에 우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여러 가지 법령 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존슨법 같은 경우도 미국 외에서는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라는 그 법 그것만 개정되면 상당한 물량을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도 보면 과거에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동반자법이나 또는 존슨법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직 또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일부 저희 대사관에서 고용한 로비 로펌 등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직은 좀 미약하고 또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일단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 출장 갔다 오셔서 저희 의원실로 관련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이나 국민들의 편익에 불편함이 있을 때 접수할 수 있는 접수 창구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들과 국민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불편하셨는데 우리가 잘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주시고 그 민원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 김기현 위원님이나 안철수 위원님이 ‘대처가 부실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던데 저도 공감하면서 장관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없지요? 정상회담 가셨을 때 혹시 낚새 이런 것도 전혀 느끼신 적이 없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현재 유사한 사업장 한 2000여 개, 아까 얘기하셨지요? 거기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조만간에. 아니, 그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각 기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국 쪽에다가 사전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데, 장관님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그 유사한 현황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기업들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김기웅 위원 아니,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중요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러니까……

○김기웅 위원 스테이터스가 어떤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기업을 통해서 받으면 금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에게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 드렸고……

○김기웅 위원 행동 요령도 이미 안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전에 페이스북 나왔을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다 혹은 일부 우리 극우 인사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잘못된 뉴스가 전달됐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이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특검 수사도 연결시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것을 순전히 법적인 접근, 법적인 문제로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김기웅 위원 가능성 다 열어 놓고 있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다음에 이게 연방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저희가 공론화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그 배경이나 동인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유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분석하고 계시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비서실장께서 고위당정협의회 때 이걸 밝히시더라고요, ‘타결됐다. 전세기를 보낼 거다’. 그러면 장관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는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날 오전에 마침 다른……

○김기웅 위원 장관님이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비서실장이?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보고를 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안보실장, 비

서실장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발표를 외교부장관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비서실장이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건 왜냐하면 초기부터 대통령실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저희들에게 또 구체적인 방안도, 지침도 내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저번에 정상회담 할 때 통상 잘 가지 않는, 국내를 지켜야 하는 비서실장이 동행한 것도 저는 좀 의아스럽게 봤고 핫라인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지금 안보실장, 외교부장관님 핫라인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있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 핫라인하고 이것들이 성격이 구분되니까? 어떤 때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한 구분이 있나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대상이 다른 것이지요.

○김기웅 위원 물론 대상이 다르지요. 어떤 문제는 누가 한다는 것들이 정해져 있나 이거지요. 우군하고 아무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의 외교 라인 자체가 좀 혼선이 온다거나 외교부의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금 미국과의 지난번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 사건이 있어서 일종의 위기관리 케이스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부 한 팀이 돼서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저녁에 출국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출국과 귀국을 5200만 국민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조지아주 바로 옆에 테네시주 있지 않습니까, 테네시주에서도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 공장 직원 명단 확보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총영사관에서……

○강선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수사 당국의 현장 단속이 2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황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또 우리 기업들과도 공유하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테네시주에 있는 한국 공장 직원 관련해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강선우 위원 장관님, 트럼프 행정부 국경안보총괄 톰 호먼 CNN 인터뷰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국경안보총괄 톰 호먼 CNN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CNN은 거의 다 보는데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선우 위원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한 업체는 부당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들을 좀 해석을 해 보면, 행간을 읽어 보면 비자 관행을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서, 그렇지요? 자국민 노동시장 등의 경제 문제에 해가 되는 사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 내용이 기억이 났고요.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현재 사건이 일어난 공장 이외에 미국 내의 한국기업 조사, 현황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위원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 현재 미국 내 기업 담당자들 또 외교부의 직접 소통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라인이 가장 신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외교부 또 주미 한국대사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기업, 이 4개 소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기본적으로 현장은 각 총영사관에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본부와 또 주미 대사관에 동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물론 이와 같은 2차 단속이나 추후에 n차 단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정립된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추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 가이드라인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요. 기업 영업기밀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공정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 생산 장비나 아니면 내부 설비 공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됐으면 이 단속 이후에 현재 공장 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내부관리지침 강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혹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주신 것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강선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업 영업기밀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는 것도 저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이해를 합니다만 동시에 이런 기업 영업기밀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 정말로 촘촘하게 그 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 마련한 안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외교부장관님,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비서실장 핫라인이 가동된 건가요, 한미 양국의?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석방이 돼서 전세비행기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 그리고 석방되는 조건은 각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선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도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섭이 마무리됐는데 장관님이 오늘 저녁에 방미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논하러 장관이 방미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이미 우리 유학생, 기업, 교민 등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 대책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 방안을 검토할 때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동안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협의가 됐던 것은 유학생 사례 또 지난번에 뉴욕에서 있었던 신학생 사례 이런 사건이었고 기업에 관한 것은 사실은……

○**김건 위원**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군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미 700조에 달하는 우리 기업 투자가 전제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제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담에서 우리 측이 이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기업 대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때는 대미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이었지 상세한 조건이나 또 상호 필요한 요구 조건, 특히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토의가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인데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행정 서명을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이게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시는 거군요, 현재는?

○**외교부장관 조현**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 받아들인다고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서는 우리가 반도체 품목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도 확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들리는데……

○**외교부장관 조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가 관세협상하고 정상회담 협의 결과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문서로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안 시켜 두니까 계속……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협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자기가 새로운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결국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특검 수사도 빌미가 되고 이번에는 비자 편법 사용이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빨리 문서화해서 일단락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것은 일단 발표를 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미·일 간의 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아마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질의하시고 차지호 위원님은 그다음 순번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간사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오늘 저녁 때 출국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은 성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잠깐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 영상 혹은 저 화면을 우리 온 국민들이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것 보면 케이블타이를 묶은 것뿐만 아니고 쇠사슬을 묶었어요. 원래 이민 단속할 때 저렇게 쇠사슬을 묶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런 경우를 보았는데 모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무려 475명 중에 332명 정도가 한국 사람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도 참담하고, 온 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것을 저렇게 전쟁하듯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온 국민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엄청난 지적들이 있었다 이것을 미 당국자들에게 꼭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외통위 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가려고, 어차피 도착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미 측과 협의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저희들이 험한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확고한 입장을 볼 때도 저런 장면이 결코 우리 한미동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자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까 김준형 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국회 때마다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단 한 번도 저는 제대로 협상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지난 정부 일이라서 잘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

○**김영배 위원** PPT 띄워 보세요.

지금 비자가 말이지요, 우리나라 비자가 이렇습니다. ESTA—에스타라고 하지요—이것 관광 목적이지요. B-1 이것은 비취업활동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만 보면 장비 설치, 유지·관리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명 정도고, 23년도에 E-2 같은 경우도 육천칠백팔백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H-2 같은 것은 108명밖에 안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돌려야 되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편법을 써서 공장도 짓고 운영하고 해 왔단 말이지요.

지금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 엔솔 공장의 공정률이 97%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다 지은 거잖아요. 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캐나다하고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는 FTA 협정을 맺을 때 이렇게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요. 이게 2004년 전이었고 2005년도에 호주 할 때는 이것을 별도 입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이것을 결국 별도 입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는 지금 별도 쿼터를 확보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트너 워드…… PWKA인가요, 그 법안을 지금 계속 발의를 했고 이번에 영 김 의원하고 미국의 의원하고 두 분이 발의를 해 났다고 들었거든요. E-4 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자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의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장관님 보시기에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영배 위원 꼭 성과를 가져 오실 것을 믿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저희랑 좀 논의를 하고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애틀랜타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민으로. 그래서 이 장면들이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비자 문제나 이런 이주 관련된 문제들 안에서 사실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기업 단위에서 어떤 니즈가 있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이런 집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저는 또 반대의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로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유사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도 내부적으로는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사실관계, 국내 안에 있는 미국 근로자 혹은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문제나 여기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기업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한국 정부의 굉장히 빠른 노력으로 인해서 며칠 안에 이렇게 만약에 석방이 되어 온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빨리 풀려 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합동단속이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조금 더 염려는 지금 며칠간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고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한 번 이렇게 불법 체류, 범법 사실들이 일종의 낙인이 돼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왕래하거나 혹은 기술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기술진들이 다시 들어갈 때 꽤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여기 300명의 우리 근로자가 앞으로 맞게 될 불이익들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석방 문제뿐만이 아니고 300명의 향후 미국과의 교류나 입국하는 문제에서 이번의 이 문제들이 영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사실 혹시 어떤 안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는 처음부터 개인적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반대의 경우에 대한 자료들을 법무부나 기타 부처와 좀 의논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부장관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민 관련해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만큼이나 저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 긴급히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체제가 만들어지고 다시 중국과의 관계가 풀려 나감으로 인해서 북이 가졌던 실제 제재 효과들이 아주 무력화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제재가 무력화되고 좀 다른 전개로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북 내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들, 내부의 경제적인 안보 사항들이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나름 예측을 하고 계신지 혹은 제재 체제가 일종의 균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실제 제재 효과가 상당 부분 많이 쇠퇴해 버린 상황 안에서 오히려 이 틈을 인도주의나 민생 중심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이전에 생크션(sanction) 체계가 아주 견고할 때는 한국이 먼저 이 생크션 체계에 균열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제재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장관님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승절 행사의 의미 중의 하나는 사실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습니다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북은 계획경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로써 8차 당대회 계획이 끝나고 내년 연초 또는 연중에 9차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간 경제발전계획을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것은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정책 방침을 천명할 것인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북·중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북·미 대화, 북·남 관계의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외교부장관이 이석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16시 10분에 정회를 한 번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장관님, 이번 조지아 공장 단속은 잘 아시지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공화당원—전 의원이라고도 하는데—신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위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뺏어 가는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신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의도했던 것은 히스패닉계 노동자 4명을 신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억측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짓고 현지 주민 8500명을 고용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침체된 미국 제조업을 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 당국의 대규모 단속에 대해서 조지아주 몇몇 의원들, 연방의원 한 20여 명이 또 여러 주민들이 이러다가 한국이 투자 철회하고 철수하면 어쩔 거냐고 우려하는 항의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의 발단이 됐다고 해도 미국 당국이 대규모 구금·체포 작전을 펼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ICE—소위 이민단속국이지요—그리고 FBI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연방기관 합동으로 500명이 투입됐고 체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다리에 쇠사슬이 묶이고—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손에는 케이블타이를 묶어서 줄줄이 연행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도 그런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전 의원의 신고로만 이것이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하고 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8500명을 고용하겠다는 하는 것은 우리 기업 측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일단 공장이 다 지어진 뒤에 고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장을 짓고 있는, 아직 97%라고 하더라도 완공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잘 좀 홍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지금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규모 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서 자국 내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인식해서인지 해외 기업의 진출에 수반되는 인력에 대

해서 반감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결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라는 압박일 텐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기업활동을 할 때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당연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 당국도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문안 중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미국 국민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노동자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간에 좋은 방향의 윈윈할 수 있는 협의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외교부장관님, 제가 또 다른 내용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바뀌고 또 새로운 장관 임명되고 양금덕 할머니 서훈이 재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 효용감에 이어서 역사 효용감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지만 우리 외교부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서 관련된 내용 함께한 것에는 박수를 칠 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양금덕 할머니 문제와 함께 여러 차례 또 질문했던 게 사도광산 문제였습니다. 등재 전부터 추도식 전과 후까지 그리고 저도 현장까지 방문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 당시 외교부는 ‘잘 준비하고 있다’, ‘잘했다’라는 식으로만 했지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았고 국감 직전에 저희가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한 자료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우리 정부는 쓰려고 했지만 일본이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니까 장관은 당시에 ‘자기가 확인했으면 그런 자료가 나가지 않았을 거다’ 또는 ‘여야한테 나간 자료는 보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참담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국가적인 중대사에 여야의 관심이 동일하고 관련된 내용은 적극 협조하면서 잘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 불참하기로 했고 그것 역시 강제성에 대한 여전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보면서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어요. 올해 초 일본은 아스카·후지와라 궁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이 이것 신청하면 지금쯤 이코모스(ICOMOS) 평가 받는 거고, 올해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다음에 내년 7월 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궁도 근처에도 강제동원 사적지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재정 위원** 궁도 기준으로 북쪽에는 미미나시 신터널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가시하라 신궁이 있습니다. 가시하라 신궁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신사 참배 강요당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사도광산과 같은, 시쳇말로 되치기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꿈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잘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들이 사도광산 문제는 2015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강제노동, 강제성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고 그 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난번에 막판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일본 측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불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스카·후지와라 궁 문제는 여기에 강제동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들은 일본이 구성하는 자산에는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정 위원** 그렇지만 어떤 상황으로 상황이 달라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일 측과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장관님께 잠시 여쭙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북한과의 대화 등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북·중·러를 엮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중국, 그닥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함께 도열해 서 있는 듯해 보여도 그 안의 묘한 역학 관계를 우리는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 중요한데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선부른,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연계된 방식으로 계속 언급했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 중국의 입장들을 살펴본다면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견해나 또는 시각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번에 시진핑·김정은 회담 합의문에 발표한 것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국의, 북한·중국의 핵심 이익을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대변한다 그런 얘기와 함께 중 주권과 영토 완정 수호를 지지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는데요.

2023년 8월 달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들이 처리했다 그래서 방류하려 할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왜곡·조작이다, 핵폐수다, 핵물질 오염수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일 감정을 매우 앞장서서 부추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습니다.

물론 방류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제사회 속에서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이

유를 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국가적 과제이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한 편 부추기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는 지를 제가 그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외교부장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 핵폐수라는 말 그게 지금도 근거가 있는 나라고 했더니 ‘근거가 있다. 실적·수치 자료를 제출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후에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 본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자료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현 정권의 해수부차관께서도 최근에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난 8월 20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검사를 쫓 했는데 하나도 검출된 것이 없다. 그리고 남동해역 12개 지점, 서북해역 7개 지점, 원근해 21개 지점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 WHO 먹는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관께서는 저한테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에 관해서……

○김기현 위원 좋습니다. 사과하셨으니까 됐는데, 이게 사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긴 수산업계의 피해, 국민적 불안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건의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자 이거지요? 좋습니다.

PT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올렸던, 트위터(X)에 올렸던 글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뉴트 킹리치라고 하는 전 미 하원의장, 공화당 사람이지요. 여기에 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치·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한다. 숨 막힐 지경이다. 새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 옹호자를 탄압한다. 대규모로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 압수수색을 했다.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일이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합동 공군기지의 한국 측 구역에 대한 급습을 감행할 정도로 오만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번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집단 체포 사건 이것이 단순한 법적 함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이런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장관께서 확신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외교를 하 시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또 재발할 수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 전문가를 보내서 미국 전문가를 교육시켜 달라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너희들 맛 봤지, 이제 전문가 보내서 우리에게 기술 이전해’라고 들립니다, 해석이. 그래서 이것 기술 이전하고 나면 다 벗겨 주고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 할 때, 7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때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비자 문제 왜 제시를 안 했습니까? 왜 제기하고 해결 해 달라고 안 그랬습니까?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MOU를 만드는 방 향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 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트위터에 올라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정상회담으로 들어가기 직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 저것은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장소 에서도 그랬고 이것이 별것…… 이런 것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분명 히 우리 측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현 위원** 장관께서는 늘 그렇게 희망적인 부분만 보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 에 이야기하자면서 또 여운을 남기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좀 전에, 거기서 왜…… 이게 10년 이상 묵은 문제입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 문 제는요. 미국에서야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원하는 이슈 아닙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구 를 해야지 왜 요구를 안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 윤후덕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이제 저기 가야 되잖아요, 공항에. 내가 마지막인가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일시 불출석하는 상세 사유를 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내는 것은 처음 봤어요. 내가 보니까 일정, 그러니까 오늘이구나. 오늘 워싱턴 D.C.로 출발하고 그리고 내일은 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면담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인천 향발 이래요.

그러면 이게 전용기로 300명 우리 분들과 같이 귀국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다가 사유를 다 이렇게 적시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300여 명의 우

리 국민들하고 같이 전용기로 안전하게 모시고 오려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장관께서?

○**외교부장관 조현** 예. 워싱턴에서의 협의 진행 상황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조지아에서 전용기가 뜨는 것도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야,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전용기를 같이 탈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미국하고 통상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남은 문제가 3500억 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느 분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산업부, 기재부 그리고 저희 외교부에서도 함께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많이 진전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 3일 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모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니까 3500억 불 협상이 끝나야, 그게 끝나야 자동차 품목별 관세 15%로 협의를 한 것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그다음 날,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5500억 불 관련해서 투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관세 15%로 이렇게 한다고 행정명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MOU 5500억 불에 대한 내용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전문을 이렇게 공개한 것은 아니지요, 언론에?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본 언론에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나온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좀 겁나요. 미국 대통령이 투자를 심의·감독할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미국이 90%를 배분받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할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트럼프가 이것 해라라고 하면 일본이 45일 만에 투자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고관세로 되돌아간다, 백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 내용이 그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겁납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투자라는 게 일본 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일본의 예산·재정으로 투자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포함해서?

○외교부장관 조현 예, 예를 들어 수출입은행에서 출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윤후덕 위원 이게 마지막 순간인 것 같은데 국익에 맞는 그런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홍기원 위원 제가 장관님께 짧게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석기 15분에 이석하셔야 된다고 하니……

말씀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조금 전에 특검이 보수 정치인이나 또는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정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압수수색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 집행을 할 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미국의 보수 정치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에 따라서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특검이 법에 따라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또는 참고적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압수수색하는데 그런 것을 은퇴한 옛날 미국 보수 정치인이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이 상임위장에서 지적받아야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기 그것은 좀……

○홍기원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법을 집행하는데, 그것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검이 자기들의 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여기서 왜 지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 좋은 성과 거두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그렇게 대규모 투자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생각해서도 또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정회를 했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공항으로 가셨고 지금 박윤주 1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잡은 후 최초의 다자 무대 등장이라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50분짜리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방영도 했잖아요. 거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모습도 나오는 걸로 방송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으로서는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마도 36년 만의 일일 것 같습니다. 1989년 비동맹회의에 김일성 주석이 아마 유고에 갔던 걸로 압니다. 그 이후 36년 만에 다자 무대에 등장한 것이고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고 상당 부분 관철한 걸로 보입니다.

○**홍기원 위원** 작년이 북·중 수교 75주년이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홍기원 위원** 그런데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보면 굉장히 소원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약까지 맺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사실 거의 국민급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어떠한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국으로서는 반서방 연대의 중심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거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완전히 복원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회담에서 제기됐으나 북쪽의 노동신문에 나오지 않은 중요한 위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중국 측에서 얘기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경제발전 경험을 교류하면서 호혜적 경제협력 심화를 원한다’ 그랬어요, ‘호혜적’. 상호 경제협력 얘기인데요.

지금 북·중 간의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억 불씩 누적돼서 지금까지 누적 총액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데 과거에는 북·중 무역이 6 대 4 정도였습니다. 수출 4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복원된 셈인데 30억 불 정도의 무역규모 속에서 90%가 수입이고 10% 정도가 중국으로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계속 쌓여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인력 수출 그리고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요구했던 것을 호혜적 경제협력이라고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유엔 제재 무력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요. 유엔 제재를 사실상 러시아는 대놓고 무시하고 있고 중국은 형식상으로는 준수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북이 그동안 죽

불만을 표출해 왔고 이번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화해 나가되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러 관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리고 김주애가 거기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는데, 저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북한 방송에서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 빼고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주애가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북경에 온 것만으로도金正恩의 후계자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 후계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金正恩도 이제 마흔두 살이고 김주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겨우 열두 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주목받는 게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이르는 시기가 소위 한반도 남북 간의 중요한 정치·외교 행사가 치러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롭게 더 강화시키는 또 한미일 협력 관계들이 재확인됐다면 한편으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큰 행사를 통해서 북·중·러 협력이랄까요, 각각의 협력 질서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 김정恩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북·중 관계들이 그간에 소원했다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회복이 됐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간에 북한은 러시아하고 협력, 중국보다도 북·러 협력을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찾아 왔다고 보는데 그 결과 작년에 북한의 경제성장이 예년에 비해서 꽤 큰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는데 그게 북·러 협력에 소위 군이나 노동력 그리고 군수물자 수출과 관련된 성과들을 통해서 아마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고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상당 부분 북한 경제의 생명줄 노릇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파병 병력 1만 2000명에 공병대 1000명, 1만 3000명이 대개 지금 알려지기로는 1인당 2000불 내외의 급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달러 유입 효과가 있고 또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노동자도 1만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몫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 이번에 전승절 계기로 북·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석을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북한은 안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대개는 경제협력을 복원·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이 제안한 것은 중국과의 전통적 협력을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경제협력 심화’라는 표현을 제안했던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호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중 경제협력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가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유엔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이것이 북한과 마찰을 빚어온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시다마는 북·중 간의 무역 역조, 적자가 자꾸 쌓여 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는 부분과 중국의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엔 제재 항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런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용선 위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숨통 정도 트였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심화·발전된다면 북으로 봐서는 소위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제재 망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큰 성과를 거둔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지금……

○통일부장관 정동영 결과적으로 유엔 제재가 사실상 고장 나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심화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의 핵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조선의원이 국민의힘 중진위원을 계속 반박해서 거시기한데요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싶은데요.

하나를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 때 미국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받은 게 200조입니다. 그중에 한국이 투자한 게 133조, 당시 환율로 1000억 달러입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 중이

고요. 얼마나 미국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아까 PPT 하나를 빠뜨리고 설명 안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기자도 얘기하지 않고 당시에 여당도 얘기 안 하다 보니 LA 타임즈 기자가 하도 답답해서, 저것 유명해졌습니다. 오히려 바이든한테 핵심 동맹국한테 이래도 되느냐, 그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래도 되느냐. 오죽했으면 미국 기자가 우리 편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수십 년 된 비자 숙원을 하지 않고 저렇게 아메리칸 파이 열창하는 게 맞느냐고요.

저는 지금 정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실무협상 중이니 그 비자를 해야 되는데 원죄는 수십 년 동안 안 한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안 한 윤석열 정부를 먼저 탓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고, 외교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바로 오염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그 당시에 확실한 건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일본한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생물학적 체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헛집에 가서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트럼프의 트위터와 이번에 MAGA 출신의 조지아의 지역위원장쯤 되겠지요. 토니 브래넬이라는 여성분의 그 행동이 찝찝합니다. 뭔가 극우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트럼프가 보시면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에서 이런 야욕들을 볼 때……

오늘도 보니까 비자는 내주겠는데 한국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인텔 지분 10%를 팔고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대신 지분을 가지는, 그 보조금으로 지분을 사겠다는 방식으로 미국이 접근하는 데서 긴장해야 된다. 저는 그것 대비하셔야 된다. 자꾸 옛날 동맹만 강조하시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장난으로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하고 바로 불법 이민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교적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자 문제 반드시 제기하시고요.

차관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불법 체류하고 불법으로 취업하는 분들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와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좀 회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비자 문제는 당연히 제기가 되어야 될 사안이고 사실은 여러 과정, 여러 경로에서 행정부하고도 그간 많은 세월 동안 제기가 됐던 사안이고 또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제가 작년에 사도광산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그때도 일본 자극한다고 국회 돈으로 가려다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안 가겠

다고 하시고 돈도 주지 말라고 해서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아이카와 박물관이 여전히 가건물로, 모욕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계속 전개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때 협상을 담당했던 분 지금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른 데서 총영사 하고 계시잖아요. 일벌백계도 안 하시면서 일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협상 잘하도록, 앞으로 일본과 협상을 더 면밀하게 준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승절 북·중·러 회담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대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중국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도리어 많이 멀어져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연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의 본협상에 나서기 전에 다자 무대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하기 위한 큰 진전을 이번 북·중·러 회담을 통해서 도리어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문제 지적 정확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동북아 지정학 속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노딜의 충격으로부터 지금만 6년, 7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협상의 조건은 성숙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일정 부분 우리의 희망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에는 비핵화를 목표로 중단단계로 영변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따라서 워싱턴 일각에서도 그때 받았어야 한다라는 후회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지요, 상황이. 당시에는 핵을 포기하는 전제로 협상이 진행된 것

이고 이제는 핵 포기 얘기, 비핵화 얘기가 나오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걸림돌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이상 이것을 위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질문 두 가지를 연이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경제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재들이 보면 핵무기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의 제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이런 제재들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경협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재들 중에 불필요한 제재들은 풀어 가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불용률이 높고 또 민간융자금의 수납률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탓이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망가짐에 따라서 남북경협에 함께했던 기업들의 손실이 커져서 생긴 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우리가 선정을, 통일부 차원에서 리스팅을 해서 동기부여나 또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제재 문제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움직이기 힘들다 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협력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경협의 시대는 노무현 정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18년 동안 남북경협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지난 18년 동안 사실상 도움받은 게 없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라서 북의 자력갱생 노선, 지난 5년 동안은 이것으로 왔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9차 5개년 계획에서 인민생활 향상 또 경제 총집중 노선 이런 것을 택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남북 간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전제로 유엔 제재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김기웅입니다.

외교부차관님께 여쭙보겠는데, 중국 전승절에 와 달라고 중국 측에서 우리 대통령께 초청장 보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김기웅 위원 왔고, 그 자리에 김정은도 올 거라는 것도 전해 들으셨지요? 그것을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일찍 알았다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했으니까, 일찍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 시점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기웅 위원 어쨌든, 정확한 시점을 얘기 안 하는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런데 그 시점, 그 정도 시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비서실장께서 일찍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다니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찍 아셨다는 게 초청 시점과 같았는지는……

○김기웅 위원 어쨌든 제가 중국이라도, 이번에 김정은도 오는데 오시라 그래 가지고 남북이 여기서 뭘 좀 해 보자라고 중국 측에서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김정은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일찍 아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얘기 안 해 주면?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오랫동안 통일부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은 굉장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김기웅 위원 아니,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김정은 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맞잖아요. 우리 정부에 전달됐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 그러니까 중국 측을 통해서 들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기웅 위원 중국 쪽에서 그 얘기가 있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보 사항이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어디 측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김정은이 오는 것을 알고 어쨌든 가면 뭔가 있을 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측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정은이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안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는 그렇게……

○김기웅 위원 어쨌든 대통령이 안 가시기로 한 것은 맞지요, 전승절에?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어쨌든 안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안 가시기로 한 것 맞잖아, 안 가셨잖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안 가신 것은 맞지요.

○**김기웅 위원** 아니, 그래서 안 가셨냐니까 왜…… 안 가셨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안 가시기로 한 이유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가셨잖아요. 국회의장이 가신 것은 지금 정부 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최종 결정은……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가라고 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요,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김기웅 위원** 아니, 물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국회의장이 가라고 얘기하셨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가 그 종합적인 결정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기웅 위원** 국회의장이 가는 것은 상징성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십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과정은 모른다 하니. 국회의장이 가서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아무 별 의미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지요. 사실은 의원님들 외교하시는 것……

○**김기웅 위원** 그러면 전승절 행사 참석은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랑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해 준 거네요, 중국 입장을 배려하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중국 입장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다 내려서……

○**김기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을 배려하니까 가는 거지요, 사실은. 종합적인 게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종합 종합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 측을 신경을 써서 직접 못 가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가라 이렇게 뻤다는 거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셨다는 거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큰 것은 인정하셨고.

그러면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가—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이미지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답변하셨다고요, 조현 장관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그것이다 그랬는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시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이랑 악수, 이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는 실시간 뉴스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3일 날 국회의장이 가서 시진핑과 악수하는 장면이 비쳐지고 있고요. 그다음 날 바로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인들 구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전의 것 한번 보여 줘 보세요,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

저기에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직전에 중국에 특사가 가서 친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바로 이어서 트럼프 SNS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실제 뉴스들이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전승절 행사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지아주를 한번 보세요, 전승절 행사 3명 서 있는 것.

어쨌든 이 상황, 이 그림이 뭔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저는 중국과도 외교해야 되고 미국과도 외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체를 가지고 외교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원외교도 외교적으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다음,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박윤주 차관께 조지아 사태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방, 그다음에 체포 기록 이런 게 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발적 출국의 형태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아주 적은 것으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선우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그 300여 명 중에, 개개인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법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강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가 다 자진 출국의 형식으로 귀국한다고 장담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영사 접견을 하고 그 의사를 존중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B-1 비자 외에 ESTA 소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강제 추방 아니면 이민 법원 두 선택지만 있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크게 보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법령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이고 그리고 추방 기록 등은 남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B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렇고 ESTA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구금 사실이 담당 영사 재량으로 CIMT로 판단이 되면 이게 비자 발급 지연을 넘어서서 대량 거절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하신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강선우 위원** 이번 일을 겪으신 300여 명의 국민들이시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강선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비자 신청, 해당 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 구금됐던 사실 자체가 담당 영사 재량으로 CIMT로 판단이 되면 이게 비자 발급 지연을 넘어 가지고 대량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다시 재입국을 할 때 미국에서 영사가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반 정도 이런 것을 좀 보고 그게 감안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그 정도밖에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겪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재입국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는 말씀 주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협상 자체가 구급 때 계시는 분들이 조속한 시기에 풀려나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재입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고 미국 재입국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도 특별한 차별이 없이 잘 구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박윤주 차관님,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말씀하신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자 발급 영사를 해 봐서 아는데, 기록이 입국했다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 같으면 그다음에 영사가 비자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냥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설명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뭔가 미국 측으로부터 확실한 어떤 리튼(written)으로 된 보장 같은 것을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사가 왜 자기가 책임을 저 주고 옛날에 불법 체류, 그러니까 문제가 된 체류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 주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건 위원** 차관님, 애틀랜타 총영사 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활동하신 내역을 보니까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식에도 가시고 한화큐셀 조지아 공장도 방문하고 LG전자 테네시 클락스빌 공장도 가고, 현지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는데 차관님이 아직도 애틀랜타 총영사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현지 대책반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건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건 위원 그간에 쌓아 왔던 우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하고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애틀랜타 총영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안 계십니다.

○김건 위원 왜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정년퇴직 언제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보통 생일이 상반기에 있는 분들은 6월 30일 정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6월 30일 정도에……

○김건 위원 6월 30일 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

○김건 위원 지금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김건 위원 석 달이 지났는데, 총영사는 아그레망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를 비워 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외교 공백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주미대사가 아직도 없는 것, 애틀랜타 총영사가 아직도 없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외교 공백이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정부가 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 절차를 빨리 해서 임명만 빨리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 연방법을 적용하는 사항이고 범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이라 조금…… 현재 워싱턴에 있는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받아들이지요. 왜냐하면 영사 면담을 조기중,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가 자기 관할지역도 벗어나 가지고, 영사 관할이 자기 지역이 아니잖아요. 조기중 총영사가 갔더라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애틀랜타 총영사가 있었으면 애틀랜타 총영사가 가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실제로 영사 면담은 보통은 총영사가 가지 않고요, 현장에 있는 담당 영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김건 위원 아니, 지금 300명의 우리 국민이 잡혀 있는데 총영사가 안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영사 면담은 보통은 그러니까……

○김건 위원 아니, 보통 때야 당연히 영사가 가는 것이지요, 한두 사람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이런 사안이 났는데 총영사가 영사 면담을 안 간다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총영사가 안 계셔서 영사 면담이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하루에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루에 1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가 내려와서 갔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워싱턴 총영사도 가고 현장에 있는 영사도 갔습니다.

○김건 위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건 위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었는데 통일부 명칭 변경은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칭 변경이 계속 검토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일부장관 정동영 의견수렴 계속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의견수렴은 계속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함으로써 북·중 관계 복원이 공식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뒷배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전에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는 바람 끝 전술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그간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극초음속미사일이나 다탄두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고 있고 또 김정은이 이번에 ICBM 연구소를 방문해서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활용한 신형 화성-20호 개발도 시사했는데 만약 북한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CBM 발사나 도발로 나오게 되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이나 양자 제재 조치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재 틀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유엔 제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일 북경으로 출발하는 당일 오전에 함흥에 있는 화학재료 종합연구소 ICBM 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노동신문에 실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중국·러시아 지도자를 겨냥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가 다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에 기대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건이 된다면,

조건이라는 건 비핵화를 테이블에서 치운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북쪽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지혜롭게, 회담에 나오되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박윤주 차관님이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300명이 거기서 체포되고 구금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지에 총영사가 없기 때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사가 면담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워싱턴에서 가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나요?

차관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 바로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하는 것은 보통은 총영사는 총괄 자체를 하고요.

○**위원장 김석기** 아니, 그걸 몰라서 내가 묻는 거예요? 나도 총영사 해 봤어요! 차관이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좀 더 진지하게 성의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의전 서열이 몇 위 정도 됐던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번째로 계속 대접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갔던 정상들 중에 푸틴 대통령은 오찬,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 식사 대접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1959년 전승절 10주년 열병식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서 있는 위치 등이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영배 위원** 북한이 중국에게 서열 2위 정도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지금 보면 9월 달에 유엔총회가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우리 대통령도 간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면 10월 27일 날 미국·중국·러시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월 31일 날~11월 1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APEC 경주에 올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을

만났을 때, 올림픽아드였나요 거기서 APEC에 오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제가 아는데.

북한이 세계 무대로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징적인 말이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 신화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조정을 강화해서 양측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말이잖아요. ‘유엔 등 다자 플랫폼’이라는 말을 김정은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보도인데 이런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지금 북한이 상당히 외교 무대에 공을 들이고 있거나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서 있는 위치를 가지고 물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지위가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의 발로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한 것은.

그리고 이번 유엔총회에도 과거에는 뉴욕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왔습니다라는 이번에는 외교부차관을, 부부장을 파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보자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혹은 한미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어 갈 지혜를 짜야 될 텐데 그것의 핵심이 결국에는 북한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패싱하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전략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지금 장관님은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남북 모두, 미국 공히, 4대 강국 모두 공유하는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 축은 우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중관계의 정상화, 한러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아주 함축적인 말씀인데 저도 매우 장관님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역시 통상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북한에게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북한과 실제 대화 국면이 찾아

을 경우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혹시 장관님 구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은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과거 정부의 적대·대결 정책에 대해서 강 대 강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문재인 정부 3년은 또 코로나 시절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6년 동안의 남북관계 제로 시대가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이 안고 있는 이른바 안보 우려사항 이것이 완화될 때 남북 간에 대화공간도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이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좀 이따 다시 조금 더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이번 전승절에 김정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이다, 비핵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중국하고 사이에 사실상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객관적인 평가들이 대체로 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제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현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것은 비현실적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특사,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국이 예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시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북한 편에 지금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겠지요.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는, 2019년 2월만 해도 북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북은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려라 하는 지침 아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최소 50개 내지 90개……

○**김기현 위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목표를 포기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스톱,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도 지금……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이 시간만 벌고 햇볕 정책에 기대서 돈 받아서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해 왔는데 지금까지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를 쫓고 있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점에 외교적 문제를 통해서,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자, 저는 그것 또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나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 적어도 잠재적 핵능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가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빨리 개정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6년 전에는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을 뜯어내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으면 국면은 천지 차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년이 흐른 뒤에 북의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북·러 동맹이 만들어졌고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 선 것은 핵 보유 3국이, 핵 대국 두 나라와 핵보유국이 그 자리에 선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의 기회를 놓친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한탄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원자력 원료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이번에 한미 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형 위원** 통일부장관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장님이 전승절 가신 게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석을 했는데 중국이 무력을 과시하고 열병식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항일 전승절이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것은 충분히 같 만했고요.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것은 오히려…… 그러나 국가 정상이 가기에, 대통령이 가기에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타협안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회의장께서 가신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저는 가서 푸틴이 적극적으로 한 10분 정도 서서 오히려 북한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장면을 옆에서 봤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으로 기울고 또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좋아질수록 그들 국가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은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끊임없이 외교부와 통일부가 그쪽 부분에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한·러 관계 잘 관리해야 하고요. 특히 지금 올해가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고 나서 바이백, 다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형 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2018년, 6년 전에 정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면 뒤에서 판짓을 했겠지요. 어떤 증거도 없이, 그 당시에 분명히 스톱을 했었고 사실 그것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긴장 관계로 갔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 것이지 그 당시에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동안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회를 줬다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확한 말씀입니다. 2018년, 19년 상황에서 모라토리엄, 핵탄두를 늘리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한 것이 4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 것이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모라토리엄은 깨졌고 그리고 적대 대결이 심화되면서 북은 기하급수적으로 탄두를 늘려서 4년 만에 핵 능력이 두 배 반 늘어났습니다, 개수로만요.

○**김준형 위원** 맞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따라서 이미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외교의 시간이다, 지정학을 이용한 외교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돼 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북한대표단의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되돌리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기대 관리도 좀 하셔야겠다, 저는 APEC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되면 좋지만 저는 북한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벤트보다는,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좀 실제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든 탑을 쌓기는 참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하루아침입니다. 이미 남북은 그 신뢰가 무너져서 남북관계는 신뢰 문제에 관한 한 폐허입니다, 폐허. 이 폐허 속에서 다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제가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아까 우원식 의장 참석을 갖고 뭐 신의 한 수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습우화 박쥐의 마지막 모습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보다 강대국

들이 훨씬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정보도 많아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 의견 말씀드렸고.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3월에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계실 때 타결이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장관님은 여의도에 계시지 않았지요, 20대 총선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물론 장관님이 굉장히 비판적 의견을 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관님이시고 국무위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이 있다면 그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장이시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번 북한인권재단, 인권재단은 인권법 이행에 가장 핵심 기관인데 거기 이사 12명 중에 정부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일곱입니다. 장관 두 명, 여당 다섯 해서요. 그러면 열둘 중에 일곱 명을 정부 여당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나 상근이사까지 다 임명할 수 있으니, 지명할 수 있으니 장관님이 생각하시던 북한 인권, 민생 지원, 생존권 지원을 위한 그런 기구로써 운영해 나가고,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나 전체를 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범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장관님 되시고 나서 여기 계시지만 외통위 간사라든가 당의 원내대표랑—이것 원내대표 해당 분야니까—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한 적이 없고요. 저는 2016년에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남북인권협력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이 오히려 적절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법을 준수하셔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현행법인데?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법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본인 부처 관장 법인데 당연히 국무위원인 장관은 그 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이행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정동영** 준수·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원내대표랑 여기 간사랑 협의를 하셨어야지요, 이사 추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정동영**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웅 위원**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게.

○**이재정 위원** 법부터 개정해 가지고 실효적으로……

○**김기웅 위원** 아니, 현행법을 지켜야지 개정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무위원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재정 위원** 실효적 논의를…… 제가 법안 낸 지 꽤 됐는데 빨리 개정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법 개정 전에는 안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정동영** 안 지키겠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면 그게 안 지키는 거지요.

○**이재정 위원**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됐으니까 정치권에서 좀 타협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웅 위원**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이재정 위원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재정 위원** 답변 아니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빨리 논의를 이어 갑시다.

○**김기웅 위원** 글썄, 국무위원이자 장관께서 현행법이 있는데,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공문 보내서 ‘이사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정상이지……

○**이재정 위원** 안 돌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국회 의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김기웅 위원** 그 이유를…… 이재정 위원님이 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 얘기하는데?

○**이재정 위원** 선배님이 얘기하셔서……

○**위원장 김석기**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외교부2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2차관님, 다자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맞습니다.

○**김건 위원**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뭘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를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안보리 제재위를 통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중국도 준수를 하고 있다고 최소한도로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바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는 계속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제재위원회는 계속 가동되고 있지만 제재위원회 산하에 있는 전문가 패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전문가 패널은 가동되지 않지만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입장 그다음에 지금 제재위

원회가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은 없어졌지만 MSMT가 작동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재 틀이 이미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그 제재 틀을 살리기 위해서 MSMT를 유사 입장국끼리 가동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관련한 제재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명목을 살려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앞으로 ICBM 실각 발사라든가 핵실험 같은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한 제재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 부분은 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패널을 종료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안보리에서 ICBM 실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는 아무래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국의 그런 비토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여러 가지 발언들과 행동들을 봤을 때 비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러시아의 비토 가능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과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은 아닌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 통일부장관님은 제재 틀이 이미 무너져서 앞으로 그런 것 추진 안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적어도 9월 중에는 의장국으로서 진행해야 되는 절차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원칙들은 일단 저희가 지켜야 되는 책무성은 있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 김건배……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건배 아주 마음에 드는 이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배 나온 김에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여쭙본 것의 연장선상에서요 9월 달에 유엔총회, 10월 27일 날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 그리고 10월 31일부터 있는 APEC 정상회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G20 이렇게 보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APEC 의장국으로서 APEC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셨듯이 김정은을 비롯해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만 공개 회의의 거의 절반 이상을 투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도 좀 주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중요한 명분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서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이것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축이

해서 여야가 함께 좀 제안하고 우리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우방국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특히 APEC에 올 주요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APEC의 성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함께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여기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내용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런저런 단어들이나 문구 이런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시도들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한반도의 운명이 정말 걸려 있는 격변의 시기에 우리 여야 정치권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도 외통위의 민주당 간사로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이 요즘 지금까지 사용된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협력이 돼야 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협력이 없으니 사실상 지난……

○**김영배 위원** 그런데 원래 협력기금이 사실은 꼭 협력의 근거나 협력할 때만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조성하거나 협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취지가 그런 취지로 쓰여지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협력기금을 하나도 전혀 못 쓴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원기금의 설치 사유, 이유,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고 대안이 혹시 없나 저도 고민 중이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영배 위원님께서 아주 통일부의 제일 가려운 데를 긁어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금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해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거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추가질의를 더 하실 겁니까?

○**김기현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석기** 그러면 추가질의 지금 두 분.

김기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박윤주 차관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아에서 발생했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매우 거친 집단체포·구금, 그것도 삼백수

십 명에 이르는 이 사태를 보는 차관님의 인식이 매우 안이하기 짝이 없다.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저분이 대한민국 차관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느낄 수도 없고 부끄러움조차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라틴계 사람들은 아예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소문이 나서.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취합한 적도 없고. 그랬으면, 이 사태가 생겼으면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뭐? ‘총영사가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 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김기현 위원 아니, 애틀랜타 총영사 하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워싱턴에 총영사 있는데 애틀랜타 총영사가 왜 있어요? 그냥 봉급만 축내고 있었네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애틀랜타 총영사가 지휘를 하고…… 혼자서 될 일이 아니지요, 당연히. 워싱턴 총영사도 지휘해야 되겠지만 그것 보조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뿐입니까? 주미대사 지금 공석이잖아요. 후임자도 안 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후임도 아직 아그레망도 안 됐잖아요. 세상에 애틀랜타 총영사 그 자리도 다 비워 놓고, 지금 다 비워 놓은 상태에서 이 사태가 생겼으면 책임감을 느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하지 국민들 앞에서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애틀랜타 총영사를 없애 버리세요! 무슨 그런 대답이 있어요? 영사가 가면 된다고요, 거기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 그런 말씀은……

○김기현 위원 그러면 영사만 두면 되지 왜 총영사를 뒹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무슨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번 본인이 잡혀 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삼백몇십 명들이 지금 다 전전공공하고 있는데 ‘총영사 없어도 그냥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사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접견을 할 때 총괄을……

○김기현 위원 접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접견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있어야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통일부장관님, 장관님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남매의 대남 비난 수위는 일에 비례해서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대북 구상을 개꿈이라고 조롱했고 또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그런 요구들을 계속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습니다.

김여정이 내세운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이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건 북의 주장이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남북 간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 상태입니다.

2018년, 19년 한반도의 봄이라고 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평화의 제도화 시대가 오겠구나. 하지만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불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난 3년의 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청사 상공 위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뿌리는 그런 적대 행위, 만일 그때 북이 거기에 대응했다라면 한반도에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장관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쪽의 주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이 갖고 있는 안보에 대한,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핵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장관님, 있다 없다 그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답변할 사안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 속에 북쪽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절실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그것을 잘 검토 분석해서……

○**김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네 가지 주장 중에서?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전부 잘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원래 취지대로 방어적 훈련으로 가는 것은 한미 훈련의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고 방어적 성격이 아니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못 받지요, 그것은.

○**김건 위원**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나 그쪽의 주장과 요구를 우리가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 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선을 분명히 그어 주는 게 앞으로 남북관계가, 남북

대화가 시작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윤주 차관에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신데 미국 땅에서 우리 국민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된 사상 초유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 총영사가 부재중이 아니고 총영사가 공관장으로 정확히 있었다면, 잘 아시잖아요. 평상시에도 이런 정보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관계 기관들이 여기에 급습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몰랐다면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급습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받으면 당연히 총영사가 제일 먼저 현장에 뛰어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조치를 하고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될 것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본부 본국에 보고를 긴급히 하고 1보 2보를 하고 거기 자기 관할하에 있는 영사들을 전부 업무 분담을 해서 착착착착 지원 나오기 전까지 총영사가 그런 대처를 하는 게 총영사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총영사가 부재중이라는 것을 지적하니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영사가 접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잠깐만 말씀……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불편하게 하고……

○**위원장 김석기** 아니, 위원장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답변을 들으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실망하고 충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박윤주 외교부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8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용선 이재강 홍기원	
	◎김 건 김기웅 인요한	국민의힘(3)
	김준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강선우 ◎김영배 윤후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더불어민주당(6)
	김 건 김기웅 김태호 송언석 안철수	국민의힘(5)
	이춘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4인)	◎이용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2)
	김기현	국민의힘(1)
	김준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강선우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상욱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송언석 안철수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조정기획관 문인석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경제국장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5. 8. 25.
최혁진	이춘석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25. 9. 2.

○의안 회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3)

8월 20일 회부됨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8. 25.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9)

8월 26일 회부됨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8. 29.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32)

9월 1일 회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2025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

(2025. 8. 29. 외교부 제출)

8월 29일 송부됨

2024년도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2025. 8. 29. 재외동포청 제출)

2025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

(2025. 8. 29. 외교부 제출)

방위비분담금 관련 보고자료

(2025. 9. 2. 국방부 제출)

이상 3건 9월 2일 송부됨

2025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2025. 9. 3. 통일부 제출)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25년 재정 관련 자료****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이상 3건 2025. 9. 3. 기획재정부 제출)

이상 4건 9월 4일 송부됨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이상 2건 2025. 9. 4. 기획재정부 제출)

이상 2건 9월 5일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대통령령 제35700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 8. 12.	2025. 8. 19.	
외교부공고 제2025-128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 8. 18.	
외교부훈령 제247호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 8. 27.	2025. 8. 27.	
통일부훈령 제719호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2025. 8. 27.	2025. 8. 28.	
통일부훈령 제720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2025. 8. 28.	2025. 8. 29.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통일부훈령 제721호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2025. 9. 1.	2025. 9. 1.	
통일부훈령 제722호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2025. 9. 1.	2025. 9. 1.	
통일부 공고 제2025-9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 8. 1.	
통일부 공고 제2025-9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 8. 6.	
통일부령 제13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8. 21.	2025. 8. 22.	
대통령령 제35701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2025. 8. 12.	2025. 8. 19.	
외교부령 제148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2025. 8. 12.	2025. 8. 19.	
외교부령 제14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25. 8. 19.	2025. 8. 27.	